

03

아기 분유 값, 구청이 찾아드렸습니다

- 데이터 장벽을 넘어 출산 가정에 세금을 돌려주다 -

프롤로그: 200만 원과 500만 원의 차이

2024년부터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깎아주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육아에 지쳐서인지 이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생애 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분들입니다. 생애 최초는 최대 200만 원까지만 감면되는데, 출산 감면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다 된다면 당연히 출산 감면을 선택해야 300만 원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법무사가 신청해 주는 대로 200만 원만 감면받고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구청에서도 납세자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출산 사실을 알 길이 없어 그냥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강남구 재산세과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 구청 안에 출산 기록도 있고 주택 취득 기록도 있는데, 이걸 맞춰보면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제1막: 부서의 벽을 넘다

생각은 좋았지만 현실은 벽이 높았습니다. 출산 정보는 보육지원과에, 세금 정보는 재산세과에 있었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서로 자료를 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부서 간 협의를 거듭했고, 마침내 데이터를 매칭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두 데이터를 겹쳐보았습니다. 그러자 보물찾기처럼 숨어있던 이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샀는데 세금을 다 낸 사람,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8가구. 금액으로는 2,700만 원이었습니다.